

# 장흥군 회진앞바다에 국내 첫 해양 낚시공원 문 연다

국비 등 35억 투입...8월 개장

오는 8월 장흥군 회진 앞바다에 전국 최초의 해양 낚시공원(조감도)이 개장한다. 장흥 회진 해양낚시공원은 국비 등 사업비 35억원이 투입돼 회진면 대리 일대에 조성된다. 장흥군은 지난해 7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공유수면 매립 및 접사



용 협의의 절차를 거쳐 같은해 10월 착공했다. 해양낚시공원은 바다낚시터 진입도로와 인공 어초, 해안데크, 정자 낚시교, 해상 낚시터, 안내소 등이 조성된다. 해양낚시 공원은 현재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바다 낚시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회진 앞바다는 10여년전부터 해마다 전국 규모의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해 온 천혜의 바다 낚시터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장흥군은 지난 2002년부터 이곳에 해상 콘도식 낚시터 2개소를 어촌계에 지원해 운영해 왔다. 군은 해양낚시공원이 조성될 경우 도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낚시체험을 통한 해양 레저산업 활성화와 함께 주변 경관을 활용한 어촌체험 관광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아 고용 창출 및 어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 낚시공원은 친체된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경기도와 경남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장흥군이 가장 먼저 개장하게 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공룡이 나타났다” ▶ 해남 우항리 공룡박물관 22m 실물 크기 설치



해남군이 황산면 우항리 공룡 화석지 곳곳에 실물 크기의 공룡 조형물 35개를 설치했다. 특히 높이 22m의 말리위시우루스는 박물관 벽을 뚫고 나오는 파격적인 디자인과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해남군은 공룡박물관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음 달 5일부터 3일간 공룡화석지를 무료 개방하고 세계 공룡대제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남군 제공)

## 화순 한천 폐기물 처리장 공사 재개될 듯

광주지법, 주민 제기 '승인 무효 소송' 기각

주민들의 건립 반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우려곡절을 겪고 있는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지난해 9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한천 폐기물처리장 설치 승인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

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착공했으나 소송 등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 가파스로 재개했던 한천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 공사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소송에서 “전남도가 설치할 승

인할 때 폐기물 처리장 규모가 5만㎡이상이면 ‘폐기물 설치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연 1만4천805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신안에 '젓새우주식회사' 설립

전남도, 100억원 투입 젓갈타운 건립도 추진

전국 생산량 90%를 차지하고 있는 젓새우 주산지인 전남도가 젓새우 산업 육성을 위해 '젓새우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22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젓새우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창업소식을 개최했다. 전남도는 5월 중에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젓새우주식회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올해 안에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또 신안군 압해면 일원에 오는 2009

년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 젓갈의 생산·가공 및 판매기능을 고루 갖춘 젓갈타운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젓새우 산업은 290여 어가에서 연간 1만2천t을 생산, 30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전국 생산량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원료 상태로 충남 강경 등 타 지역으로 반출돼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창업소식에서는 정규진 전남도립대학 교수, 박종균 교보증권 대리 등이 참석해

정부의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계획과 연계, 젓새우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특강과 효과적인 기업화 기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젓갈타운이 건립되면 전국 단위 젓갈축제 개최 등 주 생산지로서 명성 회복과 전국 유통망 확보 등 젓새우산업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며 “젓새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지원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희종기자 chae@

## 나주 생물산업지원센터

### 식약청 GMP 시설 지정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전남도 나주생물산업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합 제조시설로 지정됐다.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443억원을 들여 건립된 나주생물산업지원센터는 최근 생산설비 및 장비, 운영규정, 기술인력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식약청의 실사를 거쳐 GMP 적용업소로 지정됐다. GMP란 원료 및 자재 수급에서부터 제품 가공, 포장까지 모든 생산단계에 걸쳐 위생적인 품질관리를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도내 식품기업들의 연구, 제품 개발 및 제품 생산까지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돼 도내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특히 발효공정, 유화공정, 음료포장 등 전체 생산라인 4천 500㎡에 대한 인증 획득으로 식품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내에는 14개 건강기능식품 기업이 있으며 구기자, 녹차, 함초, 산수유 등 풍부한 자연특산자원을 고려할 때 관련 기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희종기자 chae@

## “배나무 심으세요”

영암군, 신고배 분양

영암군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배나무 분양 이벤트를 실시한다. 정보화 마을인 영암군 시종면 ‘달보는 마을’에서 분양하는 배나무는 10년생 신고배로 한그루에 10만원이며, 수확 때까지 이름표 달기(4월~5월), 열매 숙기(5월), 봉지 씌우기(6월), 배 따기(9월~10월)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일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농가에서 모든 작업을 대행해 주며 수확한 배는 택배로 배달해 준다.

또 강종 등 기상이변으로 수확량이 감소하더라도 농가에서 50kg의 수확을 보장해 준다. 오는 27일 첫 체험 이벤트로 배나무 분양농가와 도시민들이 함께 만나 배양받은 배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제기차기, 널뛰기와 봄나물 캐기 등의 행사가 열린다. 분양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영암군 홈페이지(www.yeongam.go.kr)와 달보는 마을 홈페이지(http://dal.invil.org)를 통해 가능하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 해남 두륜산 '녹차 만들기 체험장' 마련

과룩과룩 돌아온 새순으로 녹차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장이 해남 두륜산에 마련됐다. 해남군은 두륜산 도립공원 내에 조성된 녹차 밭과 녹차 체험장을 다음달부터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이곳에서는 두륜산 맑은 공기에서 자란 녹차잎을 직접 따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체험장에서 뒤집 등 과정을 체험하며 녹차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녹차 체험장은 우선 첫물차가 나오는 5월 한달동안 문을 열고, 두물차가 나오는 7월 1~15일과 세물차가 나오는 8월 15~9월 10일에도 운영된다. 두륜산은 다성(茶聖) 초의선사가 기거하던 일지암과 대흥사 등이 위치한 곳으로 다음달 3일부터 이틀간 서산대제와 초의문화제가 열린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재혼만 11년!**

영복빌딩

527-3388

주어 커리어 매니저 직원 구함

**국제외식산업(주)**

스카이뷔페 OPEN

062-262-2278